두 가지 판본의 오도답파여행기

최주한(서강대)

1

이광수가 『매일신보』의 감사였던 나카무라 켄타로(中村健太郎)에게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시정(施政) 5년의 민정(民情) 시찰'을 위한 오도답파여행을 해주지 않겠느냐는 청탁의 편지를 받은 것은 이제 막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무정』의 연재를 마친 직후, 아니면 적어도 연재가 끝나가던 무렵의 일이었다.[1] 『무정』의 연재가 끝난 것이 6월 14일의 일이고 이광수가 경성을 출발하여 오도답파길에 오른 것이 6월 26일의 일이니, 이광수로서는 물론이고 매일신보 측으로서도 이 기획은 다소 급작스럽게 추진된 일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광수를 특파원으로 하는 오도답파의 기획은 『매일신보』 6월 16일자의 「오도답파 보도기행」에서 '출발의 기일과 여정'은 조만간 다시 알리겠다는 언급과 더불어 예고된 후, 특파원의 출발을 알리고 여정에 오르는 이광수의 각오가 게재되었던 26일 출발 당일까지도 구체적인 여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2] 구체적인 여정은 출발 후 이틀이 지난 28일이 되어서야 지면에 소개되는데, 그것도 애초 계획했던 도보 기행이 기차와 기선을 이용하여 중요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보도를 수반한 것이었다.[3]

물론 오도답파를 통하여 '신정(新政) 보급의 정세'를 살피고 사회 각 방면의 발달상을 일반 사회에 널리 소개한다는 기획은 매일신보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일찍이 총독부는 1915년 9월 조선통치 5주년을 기념하여 시정 5년간의 조선 산업의 진보를 전시하고 식민 통치의 성과를 선전하는 조선 물산공진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각 지방을 편력하여 '신정 보급의 정세'를 살피고 그것을 널리 소개한다는 매일신보사의 오도답파 기획은 조선 산업의 진보를 전시함으로써 '신정의 효과'를 알게 한다는 조선 물산공진회의 취지와도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4] 6월 16일자 「오도답파도보여행」에 보이는 "今回에 好機를 得하여 此를 決行"하게 되었다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무정』의 연재를 마친 혹은 연재의 끝을

---

1) "동경에 있는 나에게 당시 매일신보 감사였던 나카무라 켄타로 씨로부터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시정(施政) 5년의 민정(民情) 시찰을 위해 조선을 행각(行脚)해 주지 않겠냐는 편지가 왔다. 그때는 매일신보에 연재한 내 소설 『무정』이 끝나고, 『개척자』라는 두 번째 소설과 「동경잡기」 라는 기행, 수필 등을 연재하고 있던 때였다."(이광수, 「무부츠 옹의 추억」(『경성일보』, 1939.3.11.-17),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1997, p.245). 『개척자』가 『매일신보』에 연재된 것은 이해 11월부터의 일이고 「동경잡신」이 연재된 것은 전년인 1916년 9월의 일인 만큼, 이광수가 나카무라 켄타로의 편지를 받은 것이 『무정』의 연재가 끝났을 때의 일이었다는 언급 또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다만 『무정』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은 119회(6.3)부터 시작되는 삼랑진의 대단원에서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 실제로 『무정』의 연재가 끝난 바로 다음날 『매일신보』 지면에 게재된 김기전의 감상문 「무정 122회를 독하다」(6.15-16)가 이틀에 걸쳐 게재되었다 -, 『무정』의 인기를 실감한 매일신보사가 이광수에게 오도답파여행을 제안한 것은 일러도 『무정』의 연재가 대단원을 향해 가던 6월 초순 무렵의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2) 오도답파 출발 당일인 1916년 2월 26일자 『매일신보』에는 이광수의 「여정에 오르면서」(1면), 특파원의 출발을 알리는 「오도답파여행 특파원 출발」(2면), 오도답파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헌 및 지방의 유지의 협조를 당부하는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 공동 명의의 「謹告」(2면) 등의 기사가 실려 있다.

3) 「오도답파여행도정」, 『매일신보』, 1917.6.28. 2면.

4) 매일신보사의 오도답파 기획과 총독부의 조선 물산공진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혜영, 「「오도답파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 『현대소설연구』 40, 2009, pp.317-318.

향해가던 매일신보사는 지금이야말로 그 오랜 기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듯하다. 오도답파 기획과 관련하여 특파원이 이광수라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오도답파여행을 알리는 기사를 내보내고 오도답파 여정을 시작한 것은 이광수에게 거는 매일신보사의 기대가 어떠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한편 이광수에게도 오도답파여행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다. 일찍이 1915년 11월 "신학문의 빛으로 조선사정을 연구"한다는 목적하에 조직된 조선학회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이광수는 조선의 현실에 기반하여 조선사정을 연구하는 일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고,[5] 1914년의 대륙방랑 시기에도 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의 기관지 『대한인정교보』의 편집 및 집필에 관여하며 해외 한인 사회에 식민 통치하의 본국의 비참한 현실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6] 더욱이 그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언어적 동질성과 더불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 사회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엮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무정』또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 조선의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신문에 생생하게 중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조선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오도답파길에 오르기 위해 동경을 떠나 경성으로 오는 길에 쓴 기행문 「동경에서 경성까지」(『청춘』 9, 1917.7)에는 활동하고 생장하고 번창하는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과 더불어 개인과 민족의 활동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는 굳센 각오, 그리고 '웅장하고 영원한' '새누리의 도안'에 거는 기대 등이 한껏 표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7] 물론 명민했던 이광수가 오도답파여행을 기획한 매일신보사 측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다. 20여 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나카무라 켄타로에게서 '시정 5년의 민정을 시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스물여섯의 그 또한 오도답파기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매일신보사의 제안에 선뜻 응한 것은 매일신보사 측의 의도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매일신보사의 오도답파 기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광수가 오도답파길에 오르기 바로 전날인 25일, 오도답파기행의 소개가 『매일신보』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5) 1915년 11월 이광수, 신익희, 장덕수 등의 발기로 조직된 조선연구회는 1916년 1월 29일 일본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한 후 1918년 후반 중심인물들이 대거 상하이로 망명하기 직전까지 꾸준한 모임을 가졌다. 이광수는 1916년 1월 29일 제1회 모임과 11월 3일의 모임에서 농촌문제와 조선 민족성에 관해 두 차례 연구 보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경무국은 조선학회에 대해 "표면상 목적은 한국에 관한 일반 학술의 연구였으나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선학회는 1910년대 재조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이래 총독부의 지원하에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조선연구회를 의식하여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사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최주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재고」, 『인문논총』 7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261-263 참조.

6) 최주한, 「이광수와 『대한인정교보』 9, 10, 11호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2014,6, pp.

7) "동경 속에 있어서는 봄이 가는지 여름이 오는지 몰랐더니, 밖에 나와 보니 벌서 여름이 무르녹았다. [중략] 모두 살았구나, 모두 생장하는구나, 모두 번창하는구나, 모두 활동하는구나. **개인도 이러할 것이요, 일민족도 마땅히 이러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굳세게 일어난다.**"(전집 9, p.140). "이제 비가 올 테지. 시원하고 기름 같은 비가 올 테지. 저 빨가벗었던 산이 기름이 흐르는 삼림으로 컴컴하게 되고 저 바짝 마른 개천도 맑은 물이 나물나물 넘칠 때가 오겠지. 그래서 고운 꽃이 피고, 청아한 새 소리가 들릴 때도 오겠지. 응, 확실히 오지. **네가 지금 이러한 새누리의 도안을 그리는 중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나 바빠할 것 없다. **천천히 천천히 웅장하고 영원한 것을 그려다오**."(상동, p.144)

는 계획이 다시 한번 변경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6월 26일자『매일신보』와『경성일보』지면에는 각각 신문사의 오도답파 기획과 관련하여 관헌과 지방 유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근고(謹告)」와「사고(社告)」가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의 공동 명의로 게재되어 있고,[8] 6월 29일『매일신보』에 제1신이 게재된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 당장『경성일보』에도 일본어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방침은 조선어로 쓰느냐 일본어로 쓰느냐 하는 언어상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되어야 한다.[9] 넓게 보아 번역을 포함하여 모든 글쓰기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당연히 어떤 매체와 어떤 독자층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과 수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경성일보』판 오도답파여행기는『매일신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도 일정한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매일신보』에는 없는 일본인 독자들만 대상으로 하여 쓴 내용도 상당하다.

다만『경성일보』의 일본어 기사에 관해서는 "전주에서부터 나는『경성일보』에도 기행문을 쓰라는 청탁을 받아서 거기서 목포까지 가는 동안에는 양 신문에 다 썼다"[10]는 이광수의 회고가 남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일찍이『경성일보』판본에 주목했던 호테이 토시히로는 전주 이전의 5편의 기사와 이후의 일본어 문장 사이에 문체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광수의 기억이 잘못이고, 이광수는 처음부터『경성일보』에 일본어로 글을 썼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11] 일본어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은 필자로서는 문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지만, ①『경성일보』기사가 처음부터 '小生'이라는 인칭대명사와 더불어 경어체 소로분(候文)으로 씌어졌다는 점, ②『경성일보』기사에는 첫회부터『매일신보』기사에는 없는, 그것도 현장에 없었다면 결코 쓸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 ③『경성일보』의 4회분에 해당하는『매일신보』의 제6신은 동일 내용을 다루고 있되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 ④『경성일보』의 5회분은『매일신보』의 기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씌어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광수가 처음부터『경성일보』에 일본어로 글을 썼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먼저 ①에서 언급한 '小生'이라는 인칭대명사와 더불어 쓰인 경어체 소로분(候文)은 그가 일찍이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게 올린「대구에서」(『매일신보』, 1916.9.22.-23)의 '小生'이라는 인칭대명사와 '나이다'의 경어체를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②『경성일보』기사에만 게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물론 그에 대한 감상, 더 나아가서는 상상까지도 곁들여 있는 까닭에『매일신보』의 기사를 토대로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그러하다.

> 자신들(시마무라 일행 - 인용자)은 예술을 위해서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곁에서 보면 역시 지방 순회공연 배우로서 차라리 딱한 느낌이 듭니다. ◇ 목포 및 부산에서 각각 이틀간 흥행을 하고 다음달 초에는 토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차실의 승강대에 높다랗게 층층이 쌓인 트렁크, 가방, 꾸러미 등은

---

8) 6월 26일자『매일신보』의「근고(謹告)」와『경성일보』의「사고(社告)」의 존재에 관해서는 각각 호테이 토시히로와 김재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호테이 토시히로,「이중언어의 이광수 -「오도답파여행기」론」,『한국 현대문학과 일본』, 한국현대문학회 제3차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8, p.9. 김재관,「「오도답파여행」에 나타난 일제 식민지 교통체계 연구」,『어문논집』46, 중앙어문학회, 2011, p.271.

9)『경성일보』판 오도답파기행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에 의해 거듭 제기된 바 있지만(布袋敏博,「李光洙「五道踏破旅行記」小考 - 朝鮮語版と日本語版の比較研究」, 第54回 朝鮮學會 發表要旨, 2003. 호테이 토시히로,「이중언어의 이광수 -「오도답파여행기」론,『한국 현대문학과 일본』, 한국현대문학회 제3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8),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탓인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0) 이광수,『반도강산 기행문집』(영창서관, 1939) 서문, 전집 10, p.529.

11) 호테이 토시히로,「이중언어의 이광수 -「오도답파여행기」론」, 앞의 글, p.9.

묻지 않아도 예술좌 일행의 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카츄샤의 가발과 의상도 들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우스워집니다.(「湖西로부터(1)」, 『경성일보』, 1917.6.30.)

◇ 마지막으로 장관은 시정(施政)의 방침으로서 계발주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인은 억누르는 게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많지만 이는 결코 득책이 아니다. 억압받은 자는 그 압력이 줄어듬과 동시에 옛날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충분히 이해득실을 납득시켜 내심으로부터 정부의 지도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계발의 근본 뜻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비로소 철저하게 조선인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드러내놓고 회심의 미소를 흘리셨습니다. 혹은 다른 보보다 모든 면에서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결과 면에서는 다른 도보다 나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시고, 세 대째 권련에 불을 붙이셨습니다.(「湖西로부터(2)」, 『경성일보』, 1917.7.1.)

『매일신보』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할 수 없는 기사라는 점에서는 ④『경성일보』 5회분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째서 오늘날까지 부여가 잊혀졌을까'라는 부제하에 씌어진 이 기사는 시간상으로도 「매일신보』의 제7신과 제8신에 해당하는 「백마강상」 사이에 씌어진 것으로,[12] 전적으로 『경성일보』의 일본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 쓴 것이다.

더욱이 이광수는 또 다른 회고에서 당시 경성일보 편집장이었던 마츠오 시게요시(松尾茂吉)가 조선인의 손으로 씌어졌다는 진기함 때문이었는지 "나의 소로문체로 된 기행문"을 初號 3단의 커다란 표제를 붙여 2면 상단 머리기사로 다루어주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13] 2면이 아니라 3면에 게재되긴 했지만 『경성일보』에 게재된 오도답파여행기 가운데 상단 머리기사로 커다란 표제를 붙인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부여에서 쓴 '아름다운 경치, 그 감개'라는 제목의 제4,5회분이 처음이다.[14]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건대, 경성일보사는 애초에 이광수에게 일본어 기사를 맡겨도 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5회분의 기사를 받아본 다음 이광수의 일본어 능력을 신뢰하여 전주 부근부터는 양쪽에 다 써도 좋다고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大正六年七月二日 (月曜日) 京城日報 第三千五百十八號 (三)

●其の美景、其の感慨

●農民解散

◇大相撲スケッチ

『경성일보』, 1917.7.2.

12) 『매일신보』의 제7신은 석양 무렵 평제탑과 황혼 무렵 백제왕릉을 찾은 감상을, 제8신에 해당하는 「백마강상」은 그 이튿날 강경으로 떠나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기사이다. 한편 『경성일보』의 제5회분은 말미에 "이제부터 쪽배를 저어 백마강을 내려가 강경으로 떠날 여장을 꾸리고 나서 이 글을 쓰겠습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어 강경으로 떠나기 직전에 쓴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이광수, 「무부츠옹의 추억」, 앞의 책, pp.245-246.

14) 기사 1, 2, 3회분은 1면이긴 하지만 5, 6단에 작은 표제로 게재되어 있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3면에 실린 4회분은 눈에 띄게 큰 표제와 더불어 1,2단에 게재되어 있고, 5회분도 3,4단에 배치되어 있다. 이 커다란 표제는 이후 네 편의 다도해 기사와 열세 편의 경주 기사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처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기가 겨냥하고 있던 독자층은 애초에 조선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독자층을 상정하며 조선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씌어졌다. 게다가 이광수 자신이 직접 밝힌 바 있듯이, 목포에서 뜻하지 않게 전염병 赤痢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후『매일신보』기사의 일부는 친우 심우섭의 번역을 거쳐 게재되어야 했다.[15] 네 편의「다도해」기사와 열세 편의「서라벌에서」기사가 그러하다.

심우섭의 번역문은 같은 국한혼용문이라 해도 언문일치가 정착된 이광수의 문장과는 달리 현토체에 가까워서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로다', '이라'와 같은 어말 어미와 더불어 1인칭 대명사 '余'와 3인칭 대명사 '彼'가 주로 쓰이는 것도 현토체 문장의 구속력 때문이다. 처음에 번역한 네 편의「다도해」기사는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현토체 문장이라 다시 번역하지 않으면 뜻을 알기 어려운 곳도 상당하다. 두 번째로 번역한 열세 편의「서라벌에서」기사의 경우 뒤로 갈수록 한글의 통사구조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토체 문장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서라벌에서」(4) 이후의 문장은 의식적으로 1인칭 대명사 '나'와 삼인칭 대명사 '그'를 사용하면서 언문일치 문장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어 번역이 언문일치 문장에 미친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그런데 이런 문체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심우섭의 번역이 종종 오역과 의역을 수반하고 있어 원문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가「서라벌에서」(2)의 다음 대목이다.

원래는 능 둘레에 돌로 된 장식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묻혀서 보이지 않고 다만 커다란 흙무덤만이 서악(西岳)의 배경과 대비되어 장엄한 느낌을 일으킵니다. 모자를 벗고 사배(四拜)합니다. 왕에 대한 예를 갖춤입니다. 생각건대 왕은 원수입니다. 소생이 백제인이니, 천이백 년 전 우리 선조는 그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사비성의 성스런 도읍을 재로 만든 것은 실로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만물을 만들고, 동시에 만물을 파괴합니다. 이래 1천여 년을 지나며 고려인이 되고, 조선인이 되고, 대한제국민이 되고, 다시 대일본제국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옷의 반도인으로서, 오늘날 당시의 은구(恩仇)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야말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인사(人事)의 변천은 한이 없습니다. 백제인의 후예인 소생이 1천 년 후의 오늘 무열왕릉 앞에 사배함도 생각하면 감개 깊은 일입니다.(「新羅の旧都に遊ぶ」(2),『경성일보』, 1917.8.23)

위의 인용문은 태종 무열왕의 능 앞에 선 이광수가 당(唐)의 군사를 끌어들여 백제를 치고 신라를 전성기로 이끈 왕의 위업을 상찬한 데 이어 고대에서 이광수 당대에 이르는 인사(人事)의 변천에 대한 감상을 적어 내려간 대목이다. 이광수는 그 자신 백제인의 후예로서 1천여 년 후 과거 원수나 다름없는 신라 무열왕의 능 앞에 참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묘한 감개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1천 여년의 역사를 지나며 과거의 백제인과 신라인이 고려인이 되고, 조선인이 되고, 대한제국민이 되고, 다시 대일본제국민이 되었는데도 당시의 은원(恩怨)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야말로 '흥미롭다'라는 표현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심우섭은 "同是 白衣의 半島人으로, 今에 當時의 恩仇를 記憶함은 可笑

15) "목포에서 赤痢에 붙들려서 중병하고 나서부터는, 즉 목포, 다도해, 경주 등의 기행문은『경성일보』에 게재하는 분을 내가 쓰고『매일신보』에는 당시 거기서 집필하던 親友 심우섭 군이 번역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는 얼마큼 문체의 차이가 있다." 이광수,『반도강산 기행문집』서문, 앞의 책, p.529.

로운 事이다"[16]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대목의 원문은 "同じく是れ, 白衣の半島人にして, 今や當時の恩仇を記憶する者さえなきこそ可笑しけれ"인데, 심우섭은 '可笑しい'라는 단어를 한자어 그대로 '可笑롭다'고 번역한 것이다. 이 경우 원문의 의미는 역사상 과거의 은인과 원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간단히 왜곡되어 버린다. 더욱이 이 문장을 바로 앞 문장과 연결하여 읽게 되면 이미 대일본제국민이 된 이상 조선인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당시 이광수의 정치적 입장과는 배치되는 견해가 도출될 우려마저 있다.[17]

더욱이 현재 이광수전집에 실려 있는 판본은 1939년 8월 영창서관에서 간행된 『반도강산 기행문집』에 실리면서 최정희에 의해 일정한 문체 수정의 과정을 거친 것인데다[18] 내선일체를 내걸고 전시체제로 돌입한 정세까지 가세하여 많은 부분이 검열되어 삭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당연히 총독부 주도하의 근대화가 초래한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활약상을 고대하는 대목들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삭제된 대목을 몇 군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席上에 第一 놀라운 것은 모인 여러분의 人事 言語 凡節이 전혀 日本化하였음이다. 衣服만 和服을 입었더면 누구나 그네가 朝鮮人인 줄을 모를 것이다. 毋論 外形만으로 內心까지 判斷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外形으로는 完全히 日本化하였다고 할 만하다. 나는 席上에서 裡里의 朝鮮人도 日本人과 平行하게 發展하도록 努力하기를 빌었고 一同은 그러하도록 盡力하시노라고 對하였다. **平行치 아니하는 發展은 아무리 하여도 一種 病的 發展이다.**(「裡里에서」(2), 『매일신보』, 1917.7.14)

木浦府의 市街가 諭達山 밑 磽埆한 地에 둘러붙은 것은 地圖를 보아 알았고 그 中에 朝鮮人의 茅屋 市街는 바로 病室窓으로서 빤히 내다보인다. **露積岩 모퉁이를 돌아서서 高樓巨閣이 櫛比하고 入艦出船의 如織한 데가 舘이라 일컫는 內地人側의 市街다. 朝鮮人이라고 살지 말라는 法은 없건마는 朝鮮人은 繁華한 그 市街에서 商工業을 經營할 만한 實力이 없다고 來訪하였던 木浦人이 말한다.**(「木浦에서」, 『매일신보』, 1917.7.27)

市區는 改正되었고 新聞 있고 銀行 있고 電話 있고 電燈 있고 水道도 不遠에 完成되리라 하니 이에 都會의 形態는 完成되었다. **다만 저 無職業한 人民을 어찌하며 飢餓하는 人民을 어찌하며 敎育을 받지 못하는 兒童들을 어찌하며 金櫃 속에서 썩기만 하는 金錢을 어찌하뇨.**(「光州에서」(1), 『매일신보』, 1917.7.24)

歷史의 모든 記錄이 다 湮滅하고 말더라도 平濟塔이 儼然히 百濟의 舊都에 섰는 동안 **吾族의 精神의 崇高하고 浩鍊됨은** 잊히지 못할 것이다. 只今에 血管 中에도 이 祖先의 血液의 數滴이 흐를지니 이것이 **新沃土를 만나고 新日光을 받으면 반드시 燦然히 꽃을 피울 날이 있을 줄을 믿는다.**(「제7신 - 백마강상에서」, 『매일신보』, 1917.7.5.)

---

16) 이광수, 심우섭 번역,

17) 이와 비슷한 의역이 한 군데 더 있다. 『경성일보』판 「다도해 순례」(1)의 기사 가운데 이광수가 이순신이 경영하던 우수영(右水營)을 돌아보며 감상을 적어내려간 대목 가운데 "그러나 지금은 함성도 피보라도 일지 않고, 당시의 적과 아군이 사이좋게 수영성(水營城) 안에 거주케 된 것에 생각이 미치면, 사뭇 감개가 없을 수 없습니다"라고 쓴 대목을 "然하나 今에는 當時의 對敵이 **舊怨을 相望하고** 親密히 水營城 內에서 **兄弟와 如히** 居住하는 것은 轉하여 **感慨無量하다**"(「다도해」(1), 『매일신보』, 1917.7.29)고 번역하고 있다. 원문이 과거와는 달라진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감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심우섭의 번역은 '옛 원한을 서로 잊고' '형제와 같이' 등등 원문에 없는 구절까지 삽입하여 일선동화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듯한 어감을 표출하고 있다.

18) "그것을 이번에 출판하게 된 때에는 내가 병중이므로 친우 최정희 여사가 수정하셔서 내 문체와 가깝도록 문체를 통일하게 되었다." 이광수, 『반도강산 기행문집』 서문, 위의 책, p.529.

위의 대목들은 적어도 1917년의 「오도답파여행」의 경우 '시정 5년의 민정 시찰담'이라는 관제 기행문의 기본 성격 위에서도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일본인 중심의 총독부의 시정(施政)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1939년의 영창서관본은 이런 대목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 그야말로 관제 기행문의 성격에 가까워지고 말았다. 특히 세 번째 인용문의 경우 굵은 활자로 표시한 대목만 삭제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삭제하게 되면 애초에 총독부의 시정이 정작 조선인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총독부의 시정을 찬양하는 글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1917년 무렵의 이광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신보』 판 「오도답파여행」과 더불어 『경성일보』 판 오도답파기가 나란히 비교 검토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졌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본고는 자료 소개에 목적이 있는 터라 우선 『근대서지』의 지면을 빌려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판 오도답파기행문의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해 두는 것으로 그치고, 좀더 심화된 논의는 후속 논문을 기약하고자 한다.

<비고>

여정(집필일)	매일신보(게재일)	경성일보(게재일)	판본 비교
경성 출발(6.26)	謹告 - 오도답파보도여행(6.16/6.26)	社告 - 오도답파보도여행(6.26)	6월 26일자 동일 내용
조치원(6.26)	제1신(6.29)	湖西로부터(1)(6.30)	경성일보는 매일신보 기사 약술 및 보충
공주(6.26)	제2신(6.30)		
공주(6.26)	제3신(7.1)	湖西로부터(2)(7.1)	상동
이인(6.26)	제4신(7.3)	湖西로부터(3)(7.2)	상동
부여(6.28)	제5신(7.4)		
부여(6.29)	제6신(7.4)	아름다운 경치, 그 감개(1) - 부여(7.2)	동일 내용, 다른 문장 경성일보 3면 상단 게재
백마강(6.30)	제7신(7.5)		
		아름다운 경치, 그 감개(2) - 부여(7.3)	**경성일보에만 있는 내용** 경성일보 3면 상단 게재
백마강(6.30)	백마강상에서(7.6)		
군산(7.2)	군산에서(7.7)		
전주(7.2)	전주에서(1)(7.8)	湖南으로부터(1)(7.6) 湖南으로부터(2)(7.7) 湖南으로부터(3)(7.8)	경성일보는 매일신보 기사 약술 및 보충/ **湖南(2)는 경성일보에만 있는 내용**
전주(7.3)	전주에서(2)(7.10)		
전주(7.6)	전주에서(3)(7.11)	湖南으로부터(4)(7.9)	서로 다른 기사 내용
전주(7.6)	전주에서(4)(7.12)	湖南으로부터(5)(7.10)	상동
이리(7.6)	이리에서(1)(7.13)	湖南으로부터(6)(7.14)	경성일보는 매일신보 기사 약술 및 보충
이리(7.6)	이리에서(2)(7.14)	湖南으로부터(7)(7.25)	서로 다른 기사 내용
이리(7.8)	이리에서(3)(7.15)		
광주(7.8)	광주에서(1)(7.24)		목포에서 집필(7.21). 광주에서의 여정은 「광주 환영
광주(7.9)	광주에서(2)(7.25)		

광주(7.10)	광주에서(3)(7.26)		연」(7.31) 기사 참조.
휴게기사(7.14)	목포에서(7.17)	湖南으로부터(8)(7.17)	赤痢로 프랑스 병원 입원. 동일 내용, 동일 문장
목포(7.21)	목포에서(1)(7.27)		
順天丸(7.23)	다도해(1)(7.29)	다도해 순례(1)(7.26)	매일신보 기사는 심우섭의 번역 원고. 경성일보 3면 상단 게재.
완도(7.24)	다도해(2)(7.30)	다도해 순례(2)(7.27)	
海神丸(7.24)	다도해(3)(8.3)	다도해 순례(3)(7.28)	
삼천포(7.24)	다도해(4)(8.4)	다도해 순례(4)(7.29)	
진주(7.25)	진주에서(1)(8.12)	嶺南으로부터(1)(8.11)	경성일보는 매일신보 기사 약술 및 보충(8.1 집필)
진주(7.26)	진주에서(2)(8.14)		
진주(7.27)	진주에서(3)(8.15)	嶺南으로부터(2)(8.12)	상동(8.2 집필)
진주(7.27)	진주에서(4)(8.16)	嶺南으로부터(3)(8.13)	상동(8.2 집필)
통영(7.29)	통영에서(1)(8.5)	統營으로부터(1)(8.16)	상동(8.3 집필)
한산도(7.29)	통영에서(2)(8.7)	統營으로부터(2)(8.17)	상동(8.3 집필)
동래온천(7.30)	동래온천에서(1)(8.8)		
금정(7.31)	동래온천에서(2)(8.9)		
해운대(8.1)	해운대에서(8.10)		
부산(8.4)	부산에서(1)(8.17)		
부산(8.5)	부산에서(2)(8.18)		
마산(8.7)	마산에서(1)(8.23)		
마산(8.7)	마산에서(2)(8.24)		
대구(8.10)	대구에서(1)(8.25)		
대구(8.11)	대구에서(2)(8.26)		
대구(8.15)	대구에서(8.28)		
경주(8.15)	서라벌에서(1)(8.29)	신라의 옛 도읍(1)(8.22)	매일신보 기사는 심우섭의 번역 원고. 경성일보 3면 상단 게재.
경주(8.15)	서라벌에서(2)(8.30)	신라의 옛 도읍(2)(8.23)	
경주(8.16)	서라벌에서(3)(8.31)	신라의 옛 도읍(3)(8.24)	
경주(8.16)	서라벌에서(4)(9.2)	신라의 옛 도읍(4)(8.25)	
경주(8.16)	서라벌에서(5)(9.3)	신라의 옛 도읍(5)(8.26)	
경주(8.16)	서라벌에서(6)(9.4)	신라의 옛 도읍(6)(8.29)	
경주(8.16)	서라벌에서(7)(9.5)	신라의 옛 도읍(7)(8.30)	
불국사(8.17)	서라벌에서(8)(9.6)	신라의 옛 도읍(8)(8.31)	
불국사(8.17)	서라벌에서(9)(9.7)	신라의 옛 도읍(9)(9.2)	
불국사(8.17)	서라벌에서(10)(8.17)	신라의 옛 도읍(10)(9.3)	
불국사(8.17)	서라벌에서(11)(9.9)	신라의 옛 도읍(11)(9.5)	
경주(8.18)	서라벌에서(12)(9.11)	신라의 옛 도읍(12)(9.6)	
경주(8.18)	서라벌에서(13)(9.12)	신라의 옛 도읍(13)(9.7)	
동경행(9.13)	이광수씨 東渡(9.15)		